



10년간의 도전! 그 결실을 맺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신청에서 성공까지 -

2007년 11월 27일 모두가 잠드는 새벽 5시, 종로구 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임직원 1,000여명은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사 앞에 모여 프랑스 파리에서 낭보가 전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여수! 꼬레아!”

우리나라 여수가 27일 새벽5시 50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 (Palais des Congres)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BIE) 총회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국으로 확정되는 순간 해양수산부 청사앞은 일순간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축포가 터지고 일부 직원들은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과 해양수산인들이 이번 2012여수세계엑스포 유치성공에 임하는 감회는 남다르다. “해양입국”의 기치아래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그 이듬해인 1997년, 바다를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 신청한 이후 근 10년 가까운 노력의 결과가 비로소 그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중국 상하이와 4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석패한 쓰라린 경험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누구보다 컸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신설부처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온 10년간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부내에 설치한 이후 해양수산부는 결코 두 번 울지 않는다는 결의 아래 5년 전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왔었다. 준비기획단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2006년 5월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무부처로서 유치위원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왔다. 특히 유치위원회의 5급 이상 간부직원 24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외)중 11명의 핵심인재를 파견함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2007년 7월부터는 유치위원회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내 전담 태스크 포스를 발족시켜 유치활동을 측면 지원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유치활동 중심조직을 박람회 준비조직으로 조속히 재편하는 한편, 가칭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박람회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보전,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예산지원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정책본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팀장 김준석 / 주무관 윤순구 T : 02-3674-6281, F : 3674-6288